

YULLIN
Newsletter

예배의 감격이 있는 교회 ——— 삶의 감동이 있는 성도

열린신문

(대한예수교장로회) 열린교회는 1993년 12월 12일, 방배2동의 작은 지하실에서 설립되어 1998년 10월에 방배동 예배당으로, 2002년 4월에 평촌 현 예배당으로 이전하였습니다. 열린교회의 비전은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예배, 참된 목양, 체계적인 양육과 훈련을 통해 참된 신자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열린교회의 이름은 요한계시록 3장 7절~8절에 근거한 것으로서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향하여 하늘을 열어 주신 교회”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열린신문>은 8면으로 이루어졌으며, 열린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열린교회는 본 신문을 매개로 외부성경공부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를 발견하신 분은 1661-4372로 제보 바랍니다.



성경 토크하기

한 손의 평온함

전도서 4장 4절의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의 원문은 “나는 모든 수고와 일을 하는 모든 재주가 그의 이웃을 시기하는 것에서 온 것임을 보았도다”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주 혹은 재능이 타인을 시기하고 경쟁하는 것에서 자극받아 발전되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사람의 시기와 경쟁이 사회를 발전시킨 동력이 된 것은 맞지만 다툼과 전쟁의 이유도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이웃이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시샘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가서 빼앗아 오는 약육강식적 학대는 개인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서도 항상 있어왔던 일임을 성경과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런데 5절은 이와 정반대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5절). 히브리어 원문은 더 자극적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팔을 붙들고 자기의 살을 먹고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라고 주신 두 손을 펼치고 아무것도 담지 않는 게으른 자의 삶은 마치 자기 살을 뜯어 먹고 사는 것과 같은, 또다른 모습의 학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극단의 학대가 있음을 지적한 전도자는 그런 학대와 고통이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행복하니라)”(6절).

여기에서 전도자가 전하는 대안은 자족과 균형입니다. 자신의 두 손을 다 채우려는 욕심은 시기와 약탈을 야기하고, 두 손에 아무것도 채우지 않는 게으름은 자기 학대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위주신 우리의 기업과 가정과 자녀와 삶 가운데서 성실하게 우리의 한 손을 잘 채우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여 나머지 한 손을 채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길 기다리면서 베푸는 삶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손에 채워진 것을 감사하고 다른 한 손을 펴는 밸런스와 여유가, 피할 수 없는 경쟁 구도의 사회 속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는 삶의 지혜입니다. ☆



텍스트와 콘텍스트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김성진 담임목사

들어가는 말

마가복음 11장부터 기록된 사건들은 시간적으로는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일주일이며, 공간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의 핵심지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일주일 중 두 번째 날 아침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출발하셔서 예루살렘으로 4km 정도 걸어가는 길에 시장하셔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가셔서 잎사귀 사이에서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14절).

사실 이 행동 자체를 보면 그간의 예수님의 태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따뜻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길가에 있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그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더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님은 때가 아닌 나무에 가서 열매 없음을 보시고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실제로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은 그렇게 무성한데 잎사귀가 하룻밤 사이에 다 마르고 뿌리까지도 말라서 죽어있는 그 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 질문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공생애 3년의 기간 중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분의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중요한 시간에 가장 처음 행하신 기적이 죄 없어 보이는 무화과나무를 말라죽이신 사건이었다는 것이 이 본문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당황하게 합니다.

무화과나무의 기적과 관련해서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시장하신데 왜 하필 무화과나무로 가셨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행하신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그렇게 배가 고프셨다면 돌덩어리로 떡을 만드셨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무화과나무로 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 영적인 관계를 이야기할 때 무화과나무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 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막 11:12-26)

사용한다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나 예레미야, 호세아와 같은 선지서(사34:4, 렘8:13, 호2:12 등)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다시는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너희의 무화과나무가 마를 것이다.” 이 표현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 회복과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너희들이 다시 너희의 땅에서 무화과나무를 먹을 것이다”(렘5:17 등)라고 하셨습니다.

“ 열매의 때가 아닌데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

무화과나무는
하나님과 백성사이의 관계를 상징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외형만 복적이는 이스라엘과
종교의 이름으로 배를 채우며
예배자의 생명을 죽였던
종교지도자들의 모습

뿌리째 말라죽은 나무처럼
40년 후에 파괴된 예루살렘

잎 옆에 작은 열매를 같이 맺는
무화과나무처럼
삶의 전 영역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

이처럼 무화과나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무화과나무를 의도적으로 택하셔서 그 시대의 패역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때가 아닌 무화과나무에 가서 열매를 찾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무화과나무의 생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나무들은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그 꽃이 수정되면 열매가 만들어 집니다. 그런데 무화과나무는 잎사귀가 나면서 열매가 그 옆에 같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는 그 잎사귀 옆에 열매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럼 본문에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때는 시기적으로 무화과 추수 때보다 한 달 정도 이른 때였기 때문에 추수할 수 있는 열매의 때는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풀어야 할 문제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여 말라죽게 하실 필요까지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겉으로는 복대고 풍성해 보이지만 그들의 실제 삶에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의 영적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시고자 행

하신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라죽었던 것과 같은 심판이 그들에게 임박하게 일어날 것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와 이스라엘

이를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둘째 날과 셋째 날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날 아침에 보았던 열매 없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는, 곧이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 없이 형식적 제사만 드리며, 종교적인 겉치레는 화려하나 마음은 사악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앉으시면서 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만민이 와서 기도해야 하는 집,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그 성전을 지키는 열매를 맺었어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신 것은 완전한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그 잎사귀 옆에 있는 작은 열매라도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먼저 된 자로 보내셔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만들어 놓은 성전과 그 성전을 지키라고 보낸 이스라엘의 타락하고 열매 없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복적복적하면서 짐승을 팔고 성전 안에서만 통용되는 돈으로 교환해 주면서 엄청난 이윤을 남겨서 성전을 시장통으로 만들어버린 이스라엘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였던 것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예수님은 바깥 말라서 뿌리째 죽어있는 이 무화과나무를 지나가셔서 성전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을 만나 권위에 관한 논쟁을 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 모이는 모든 예배자의 영적 생명을 다 죽게 해서, 성전은 더 이상 생명이 없고 죽은 자들이 가득한 곳이 되었음을 드러내십니다.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나무는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자 오히려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들의 생명을 죽이는 그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해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의 기적을 통해서 이들의 멸망을 선포하셨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이 때로부터 40년 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완전하게 파괴되었습니다!

맺음말

우리는 이 땅에 심겨진 무화과나무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십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가 아니고, 주님이 찾으실 때 삶의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는 나무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서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를 치장하는 신앙의 모든 연륜과 직분을 다 내려놓고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는지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

화산교회

내년 아웃리치는 아빠가 먼저 가자고 할게

올해 아웃리치에 참여하자는 아내의 권유를 듣고 사실 부담스러운 마음이 컸습니다. 첫사랑의 감격도 아득해진 채 하루하루 직장생활의 고단함에 허덕이며, 제 신앙 하나 가까스로 건사하며 살아가는 요즘의 제 모습이 아웃리치에 어울리지 않다는 생각이 있기도 했고, 솔직히 모처럼의 휴일에 좀 쉬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주님의 지상명령임을 모르는 바 아니니 대놓고 거절할 명분이 없어 미적거리고 있는 무렵, 벌써 아웃리치 가기로 엄마랑 약속한 초등학생 자녀들이 틈만 나면 초청잔치 울동을 연습하며 신나게 사역 준비를 하고 있더군요. '아, 이러다 집안의 기도제목으로 전락할 수도 있겠다'는 모종의 위기감을 느끼며 아웃리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떠밀린 듯 참여한 부족한 자의 아웃리치였지만 주님은 예비하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웃리치는 우선 저 자신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전 준비 모임에서 마을장 집사님이 "우리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창조주 하나님의 일하심은 팩트이니 그걸 담대하게 전하면 된다"는 말을 문득 던지셨는데, 그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는 자주 낙망하고 실패하고 시련에 드는 연약한 인간이더라도 내 자랑하러 가는 거 아니고 하나님 보여드리러 가는 것이니 좀 당당하게 전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 보니 무더진 신앙 중에도 '온 우주의 오묘한 질서가 결코 저절로 이뤄진 것이 아닌 위대한 창조주의 섭리로 창조된 것'이란 사실, '구원받을 유일한 이름이 예수'라는 사실은 의심된 적이 없었는데 이것이 새삼 감사로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전도사역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아웃리치 첫날 마을 전도. 유대의 목사님의 베풀과 섬김으로 위낙 관계를 잘 다져 놓으신지라 화산교회에서 왔다고 하면 많이들 환대해 주셨지만, 전도는 영적 싸움

인지라 전도지를 꺼내 복음 전달을 하려고 하면 금세 냉랭해진 표정으로 외면하시는 분들, 다 알고 있다며, 불교라며 복음 제시를 강경하게 거절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한번은 마을을 돌다 장애가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부부를 뵈었는데, 할머니는 20여 년 전 경운기 전복 사고로 인한 척추 골절로 허리가 구부러지고, 할아버지는 월남전에서 포탄 파편을 맞아 눈과 다리에 장애를 갖게 되신 분들이었습니다. 안타깝고 기구한 이분들의 이야기를 한참 동안 들으며 상처와 아픔을 주님이 위로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가슴에 가득 차올랐고, 전도의 열망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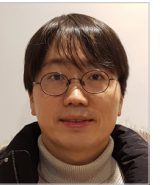


하지만 복음 제시를 시작하자 할아버지는 갑자기 말씀을 끊고 집 안으로 사라져 버렸고 아직 마당에 남아 있던 할머니 역시 쯤전의 친근했던 미소는 어디로 갔는지 눈조차 마주치지 않고 등을 돌린 채 강경하게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머님을 사랑하시는 마음은 진실이란 건 기억해 주세요. 그거 전하려고 온 거예요." 잠시 돌아선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을 때 짧게 한마디 말을 던지는데, 갑자기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웃리치를 떠나기 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이 웬지 들지 않아 마음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내 마음 속에 성령의 증거들이 점점 차오름에 감사했습니다.

아웃리치 전도사역 마지막 장소는 산우물마을이었는데, 이곳에서의 전도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 마을은 산비탈처럼 가파른 곳에 위치한 외진 곳이었습니다. 거주



박종호 장년5교구
crisn@hanmail.net



하는 어르신들이 자력으로 외부로 오가기가 쉽지 않을 정도의 환경이고, 다음 아웃리치를 언제 다시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니 이번 기회에 복음 제시와 영접을 꼭 이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몇몇 가정을 들러 복음을 전하던 중 할머니 혼자 사시는 한 집에 들렀고, 마을장 집사님이 한마디 한마디 삶을 나누며 천천히 복음을 전하는데, 집사님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대답하는 할머니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할머니의 눈빛에는 형식적인 응대가 아닌, 더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느껴지기도 했는데 역시나 그분은 큰 목소리로 영접기도까지 따라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할머니는 어렸을 적 주일학교에도 다닌 적이 있었다며 족히 70~80년은 됐을 오래전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웃리치 동안 이분처럼 믿음의 흔적이 있는 분들을 보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대개는 '나도 다녀봐서 알아' 같이 심드렁한 거절로 나타나는 믿음의 흔적들도 많았지만, 이분처럼 하나님의 예비하신 시간이 되니 마른 뼈가 살아나듯 구체적인 믿음의 고백으로 되살아나, 소생을 이뤄내는 믿음의 흔적들도 있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할머니의 입에서 이어지는 영접기도 구절들은 그 어떤 노래와 시구보다 주님에게 반갑고 귀한 언어들이었을 텐데, 주님의 그 마음이 느껴져 온 팀원이 한마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아웃리치를 돌아보면 감사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실감 났고, 그 분이 일하시는 현장에 부족하나마 동참하고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아웃리치를 다녀온 지 벌써 2주가 지났지만, 저희 집 아이들은 아직도 틈만 나면 '너는 구원 열차, 나는 구원 방주' 울동과 찬양을 신나게 따라 하네요. 아이들에게 말해줘야겠습니다. "애들아, 내년 아웃리치는 아빠가 먼저 가자고 할게." ☆

문법교회

당신 덕분에

윤석근 청년부
dfc1315@naver.com



우선 많은 인원이 안전하게 정해진 일정을 완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2박 3일 동안 맛있는 식사를 준비해 주신 권사님, 집사님들께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아웃리치는 그동안 살아온 길과 천국에 대한 생각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돈, 명예, 혹은 세상의 어떤 다른 내세울 것과 자랑할 것이 모두 무용지물이던 2박 3일, 내 앞에 붙을 수식어가 필요 없는 순간, 그게 바로 천국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돈으로도 갈 수 없고 지식으로도, 힘으로도 못 가는, 하나님 앞에 거듭나야 갈 수 있는 천국을 생각해 봅니다.

먼 훗날 저의 기억에서도 지금의 날들이 잊혀져 갈 무렵 천국에서 만난 영혼이 당신의 그 짧은 방문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지금 내가 이곳에 있노라고 인사할 때 얼마나 즐겁고 감격스러울지 생각해 봅니다. 다음 아웃리치의 일정까지 1년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2박 3일간 뿌리고 온 복음의 불씨가 산불처럼 번져 타오르길 기대하며 저의 소감문을 마치겠습니다. ☆

대항사랑교회

전도의 기쁨

이가빈 초등부



작년에 아웃리치를 갔다 오고 이번 해에도 간다고 하기에 다시 성주군에 갔었다. 대항1리에 전도를 가서 여러 명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전도할 때마다 마음속에 뭔가 차 오르는 것 같았다. 전도할 때마다 내 신앙심도 높아져 가서 기뻐다. 또 할머니들이 전도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습을 보면 내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으시려는 분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전도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 초청잔치에 많은 분들이 와 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이번 아웃리치는 진짜로 감동받아서 이번 2024년 대항사랑교회 초청잔치에 내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 ☆



추천도서

이 엠바운즈의 기도

EM.바운즈(임종원 역)브니엘



하나님의 일에 너무나 분주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것, 교회 일하느라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일에 관해 그분과 이야기를 나눌 시간조차 갖지 못하는 것은 퇴보하는 지름길이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의 법칙 안에서 이루어진다. 커다란 은혜는 강력한 기도로부터 찾아온다. 하나님의 계획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 이루어진다. 기도는 하늘에 닿고 땅을 움직인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소유하고 계신 가장 강력한 도구이다. 하나님은 더욱 간절하고 강력한 기도의 손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지고한 계획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섭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면서 움직이게 된다.

또한 기도는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모든 곳에서 효과를 나타낸다. 기도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두루 영향을 미친다. 기도는 시간과 영원에 대한 인간의 관심을 다룬다. 기도는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일들에 간섭하도록 움직이게 만든다. 그렇기에 기도는 어디든지 다다르고 모든 일에 손을 내뻐는다. 이런 기도의 세계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도의 사람 바운즈가 당신을 초대한다.(교보문고)

추동교회

‘나를 안심하게 만드는 말’의 반전



김주영 청년부
dvola@naver.com



나의 국내아웃리치 시작은 작년이였다. 전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 따로, 말씀대로 살아서 본이 되는 사람 따로 있다고 생각했었다. 왜냐하면 나에겐 복음을 전하는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마음의 담대함과 화려한 언변이 나에겐 없었다. 그저 주어진 재능을 사용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전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생각은 나를 위해 내가 지어낸 ‘나를 안심하게 만드는 말’이었다. 그 ‘나를 안심하게 만드는 말’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 삶에 없었다.

작년에 아웃리치에 가서 어르신들을 보았다. 시골 어르신들의 대부분은 농업을 하셨다. 그분들은 한 해 농사를 망칠까 하루도 빠짐없이 밭에 나가 일하셨다. 아침부터 나와 해가 떨어질 때까지 말이다. 그렇게 반복되는 삶 속에 복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보였다. 하루의 휴식도 맘 편히 하지 못하는 삶처럼 보였다. 누군가는 저들에게 가서 전해야 했다. 그들의 삶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줄 사람이 필요하느라 느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나를 안심하게 만드는 말’이 나를 가로막았다.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괜찮다며, 나에겐 복음 제시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넘어갔다. 올해 전하지 못해도 내년에 다시 와서 누군가가 대신 전해주겠지 라고 생각했다. 어르신들이 내년에 살아 계실지도 모르면서 말이다. 그렇게 작년엔 끝났다.

하지만 아웃리치 이후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장하고, 상황을 너무 자연스럽게 아웃리치로 향하게 해주

셨다. 그렇게 올해 아웃리치가 시작되었다. 올해도 작년과 같을 수 없다며 기도로 준비했다.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아웃리치를 위해 기도했다. 아웃리치 가기 전의 기도는 마치 전쟁 시작 전에 전신갑주를 입는 것과 같다고 느꼈다. 마음과 몸이 점점 아웃리치를 향하는 게 느껴졌다. 그렇게 아웃리치 당일,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하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마음은 가벼웠다. 잠을 얼마 자지 못하더라도 이상하게 몸이 움직였다.

아웃리치에 가서 어르신들을 보니 올해도 농사짓느라 바빠서 못 오신다는 어르신들이 많았다. 또, 그냥 교회가 싫다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어르신들을 보면서 작년과는 다르게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말들이 있었고, 그 말들을 발설하게 되었다. 복음을 전했다. 화려한 언변이 나에겐 없어서 투박하게 전했다. 그리고 어르신은 예예만 하시며 무심하게 넘기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한 이 복음의 씨앗이 그 어르신에게 심어져 언젠가 그 씨앗이 발아하기를 바랐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로 인도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나를 안심하게 만드는 말’이 내 안에서 깨졌다.

복음 제시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다. 또한, 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전하는 것을 원하신다고 직시하고 나니 내 삶에서도 복음을 제시할 용기가 났다. 누군가 교회에 나가고 싶어하고, 내가 믿는 신이 어떤 분이냐 했을 때, 두서 없이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제시하며 구원받는 길로 인도해야 함을 알았다.

하나님께서 아웃리치를 통해 나를 바꾸셨다. 언제든지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하는 걸 알게 해주셨다. 또한 우리가 행하여도 그것이 결과로 바로 오진 않는다. 완성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 아웃리치가 끝난 이후에도 어르신들을 위해 계속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다.

올해 아웃리치는 미묘하지만 너무나 큰 변화를 나에게 준 것 같다. 누군가에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여주셨을 것이고, 누군가에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여주셨을 것이고,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느낀 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을 쉬이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란다. 우리 인생에 우연은 없다.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역사하실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웃리치를 마쳤다. 청년과 장년이 어우러져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 너무나도 편한 아웃리치가 되었다. 청년으로서 장년분들이 아들처럼 대해주셔서 감사했다. 서로가 편한 상황이 아님에도 마음이 평안해졌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공동체로 연합되어 성장되어 가는 것을 느꼈다. 누구 하나 불만 갖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다.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 이것은 우리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와 아웃리치 시작하기 전부터 함께하셔서 끝날 때까지 함께하셨다.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번 아웃리치에서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

동강중앙교회

나는 혼자라 연약하여 넘어졌습니다



송춘옥 장년6교구
camp0306@hanmail.net



멀고도 먼 전라도 고흥땅에 90년 전에 세워주신 동강중앙교회! 지체들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도착예배를 드린 후 부지런히 복음의 신발을 신은 채 작년에 전도했던 어르신들을 찾아 보며 정답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르신 한 분은 2023년 5월 아웃리치 팀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신 후 7월에 소천하셨다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아, 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신지요!

따가운 햇볕을 뒤로 한 채 조별로 흠어진 지체들은 서로 짝을 지어 가가호호 방문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옆에서 기도해 주며 추임새를 넣곤 했습니다. 눈물로 호소하는 지체들의 간절한 복음은 제 영혼에 회개를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저녁식사를 기다리는 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실질적으로 전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 전도지와 선물을 들고 교회 바로 앞에 있는 빨간 벽돌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동강중앙교회를 섬기시는 71세 집사님이 계셨고 56세이신 아드님이 와 계신 터였습니다.

그 아드님은 어머니 따라 초등학교 때 교회 다닌 기억이 있고, 그 아내는 30년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최근에 모두가 절에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하는 비통한 생각이 들어서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옆에서 듣고 계시다가 2년 전에 남편분이 폐

암을 앓고부터 병 수발하느라 교회를 못 나가게 되었고 작년 말에 남편분이 돌아가시면서 한 집안에 종교가 두 개이면 사달이 나니 아들 믿는 불교로 개종하라 하는 유언을 남겼다는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불교로 갈 것은 아니지만 혹시나 본인이 교회를 나감으로 아들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감 때문에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남편분을 구원하려고 애썼지만 교회 한 번 못하고 남편분이 돌아가셨으니 이 또한 하나님 벨 면목이 없다고 하시면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신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만남이 어찌 우연이겠느냐고 하나님이 집사님의 마음을 아시고 열린교회 지체분들을 보내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집사님께서 밤이 늦었으니 어여 가라고 한사코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교회에 돌아와 사모님께 여쭙보니 그분을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으며 꼭 도움을 간절히 구한다는 간청도 하셨습니다.

다음 날 새벽기도를 마치고 아침 8시부터 집사님께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시 한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가정을 하나님이 해롭게 하지 않으시니 염려 마시고 주님만 믿고 오늘 예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라고 하며 계속 밀당이 오갔고 결국 어려운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향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식당 봉사하시는 지체들의 수고로 정말 맛있게 드셨다는 말씀과 함께 “고맙습니다! 사실은 오늘 예배 안 왔으면

꽤 오랫동안 주저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집에서 혼자 믿는 사람이라 연약하여 넘어져 있었었습니다. 그 멀리서 오셔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이 내 고통을 아시고 나를 찾아내셨습니다. 다시는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여 넘어졌습니다! 집사님의 이 말씀이 마치 공동체 연합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왔습니다. 교회 지체들이 생각났고 뽕뽕 뭉쳐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사달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음을 감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체들은 오후 5시부터 있을 초청잔치에 한 영혼이라도 모시고 오려고 젖먹던 힘을 다했고 더운 날씨에도 아랑곳없이 총력전을 벌였습니다. 전도하신 분이 예배당에 오시면 너무 좋아 환호성을 쳤고 이리저리 둘러봐도 얼굴이 비치 않으면 속상해 했습니다. 초청잔치 때 어린 자녀들의 율동 찬양과 청년분들의 복음 연극, 선물뽑기와 주방팀의 환상적이고 예술적인 음식맛은 일품이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는 이 기쁨을 어디서 맛보아 알 수 있을까요!

동강중앙교회가 올해로 마지막이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서로 울며 꼭 천국에서 뵈어요, 믿음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꼭 기도할게요! 두 손을 꼭 붙잡고 이별을 아쉬워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선교여행과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는 지금 열린행전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감히 혼자서는 할 수 없는 동역자들과의 지체됨이 이 얼마나 신비한 능력인지요!! ☆

대산교회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때가 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손을 잡고 따라가던 아웃리치를 성인이 된 후 스스로의 의지로 처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의 기억이 전부였던지라 정확히 어떠한 사역인지도 잘 몰랐고, 어쩌면 가벼운 마음으로 첫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나 사전모임을 거듭할수록 점점 부담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웃리치는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였습니다. 영혼을 위해 간절히 힘써야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리에 모르는 사람에게 말도 잘 못 붙이는 내가, 내 가족들도 전도하지 못하고 있는 내가 가도 될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오는 두려움인 걸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선 그런 제게 목상을 통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는 말씀을 주셨고, 계속되는 기도를 통해 제가 가지고 있던 긴장과 두려움을 기대와 소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첫날은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방문해서 어르신 댁에 앉아 눈높이를 맞추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주로 들었습니다. 집사님들께서 진심으로 어르신들께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이 제게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장년분들과 함께 조를 이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집사님들의 전도하시는 모습을 보며 배움과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또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누군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을 한 것도 아닌데 그때의 저는 스스로

도 잘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9살 은윌이를 통해 그러한 마음을 이겨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집사님께서 은윌이에게 한번 해볼까? 하며 권하시자마자 아무런 고민 없이 전도지를 어르신께 보여드리던 은윌이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질문을 다 외워왔던 은윌이가 정말 어르신께 그 질문을 드리는 모습을 보며 저는 놀라움과 함께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평소의 저라면 나보다 훨씬 어린아이가 나보다 낫다며 더 위축되었을 텐데, 오히려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게 복음 전파에 있어서 이 자리에 온 모두를 사용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셨고 각자의 역할과 각자의 때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 후엔 자연스럽게 제가 복음을 전하는 순간이 왔으며, 서툴렀지만 주님께서 함께하신다는 생각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군데 돌아다니며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남편이 믿지 않아서 많이 지치셨던 할머니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이제는 지친다고 말씀하시던 그 모습에 집에 있던 저의 가족들이 생각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은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알기에 저는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초면인 사람을 위해 그렇게 진심으로 울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튿날 오전 전도를 잘 마치고 돌아와 잔치 준비를 하며 조금은 조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연습이 끝난 후 마지막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저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을 주셔서 마음에 평안을 얻었습니다. 잔치

가 시작되고 준비한 식사 자리가 가득 채워지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도 가득 채워짐을 느꼈습니다. 두세 번 봤다고 어느샌가 익숙해진 얼굴들이 보일 때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지 않을 것 같았던 분도 나오시는 모습을 보며 다시금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준비한 찬양과 연극을 선보일 때 가장 큰 두려움이었던 떨림을 극복하고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첫 연습을 할 때 긴장되는 마음에 첫 대사를 말하기까지 한참이나 걸렸던 저를 그 자리에서만은 완벽한 청년으로 보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좋아해 주시던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며 벅찬 마음이 들었습니다. 준비했던 잔치를 문제 없이 잘 마칠 수 있음에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제게 부여주셨던 사랑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어르신들에게 사진을 전해 드리러 갈 때 그간의 대하기 어려웠던 모든 마음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게 하셨습니다. 먼저 그분들께 말을 걸고, 손을 잡고, 꼭 전해드리고 싶었던 말 또한 하게 하였고 또 그분들을 품에 안아 따뜻한 체온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또한 첫째 날과 둘째 날 만나지 못했던 분까지 만나게 하시며 마지막까지 주님의 일하심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이번 아웃리치는 정말 제게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소망하고, 마음속에서만 바라오던 제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몸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해주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



고단비 청년부
ko21209@naver.com



길곡교회

삶의 아웃리치가 시작되다

아웃리치가 끝나고, 은혜를 묵상하는 중 이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한 영혼을 위해 한 시도 쉬지 않고 기도한 적이 있었나?' 이내 깨달았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임을.

올해는 감사하게도 작년과 동일한 사역지에 가게 되었다. 작년 아웃리치 때 마음에 사진처럼 남은 할머니이 몇 분 계셨다. 그중 한 분은 귀가 거의 들리지 않았고, 심장질환으로 인해 답소초차 쉬이 나누지 못하는 상태였다. 어두컴컴한 집에서 홀로 여생을 살아가시는 모습이 내게는 충격적이었다. 복음의 빛 없이 살아가는 영혼의 한 단면이었다. 올해 아웃리치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은 그 할머니의 모습을 많이 떠오르게 하였고, 덕분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역을 준비할 수 있었다.

이번 전도 가운데 본 할머니의 모습은 놀랍게도 호전되어 있었다. 청력이 많이 좋아지셔서 대화도 수월하게 가능했고, 예전에 비해 안색도 밝아지셨다. 할머니께 복음을 전하며, 그동안 길곡교회 가운데 부여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했다. '주님께서 할머니가 복음을 들으실 수 있도록 많이 회복시켜 주셨구나.' 이분과 예수님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이라는 생각에, 애타는 마음으로 호소했다. 할머니의 건강과 회심을 위해 1년 동안 걱정 가득한 마음으로 기도했노라고. 이렇게나 할머니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처음에 할머니

니께서는 교회에 대해 그리 내려하지 않으셨지만, 그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사랑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임을 기억했다. 죄로 인해 어두웠던 할머니의 삶을 밝게 비춰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전하는 것이었다. 닫혀있던 할머니의 마음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고, 기적적으로 초청잔치까지 참석하시게 되었다.

할머니와 사진을 찍고, 식사하며 대화를 나누고, 화장실에 모셔다드리고, 예배로 인도해 드리기가 쉬지 않고 그분의 영접과 회심을 위해 기도했다. 잃어버린 자녀를 찾을 수 있다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도 마다하지 않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할머니의 구주 되시길 간절히 바랐다. 돌이켜보면 전도의 모든 순간을 기도로 임하게 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참 감사하다. 할머니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조금이나마 동참한 것이 아닐까.

할머니는 오랜만에 주민분들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몹시 행복해하셨다. 하지만 아무런 대가 없이 잔치를 즐기지만 한 것 같다고 미안해하셨다. 나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대청마루로 할머니를 앉혀 드리며 말씀드렸다. 우리는 할머니께 드리지만 하려고 온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무런 값없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가 가진 모든 사랑 다 전하려 왔다고. 그리고 헤어짐을 못내 아쉬워하시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기도해 드렸고 할머니께서는 고맙다며 "아멘"이라



조민선 청년부
ms010714@gmail.com



고 답해 주셨다.

길곡1리, 동곡리, 길곡2리, 화원동까지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다.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는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단 하나 확실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토록 주시하신다는 점이다. 나는 오늘도 길곡1리의 언덕배기에 위치한 작은 집에서 할머니가 뒷발을 가꾸고 계실지, 마루에서 쉬고 계실지 조용히 마음에 그려본다. 이제 삶의 아웃리치가 시작되었다. 내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사랑으로 주님을 증거하리라 다짐하며 기도한다. ☆

새가족

▶▶ 장년

임사랑(87)
김도경(72)
임소영(76)
유정선(55)
정진우(72)
김화숙(74)
민승기(88)
임지운(88)

송경문(86)
정지윤(85)
최수은(74)
이상옥(52)
전현수(79)
김하은(81)
이중원(81)
조소정(81)

▶▶ 청년

송준하(98)
이현희(81)



임직후기(*지난호에 이어집니다)

〈시무권사〉



전미경

부족한 자를 새 직분으로 부르셔서 아름다운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가까이 주님의 은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을 닮아가며, 이전보다 더 주님 알아가며 사랑하며 깊이 의지하며 덕스러운 삶에 힘쓰겠습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분이 감당하신 사명을 본받아 교회를 향한 진중한 기도와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섬김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좋은 권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미선

부족한 자에게 권사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지체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임직교육 받으며 배우고 다짐했던 그 첫마음을 잊지 않고 주의 말씀 따라 겸손히 기도하며 섬기겠습니다.



최인선

임직훈련을 받고 교회란 무엇인지, 직분자를 왜 세우시는지 알게 되었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권사의 자격과 역할을 보니 자격도 없고 감당할 능력도 안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불러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임에 감사드리고, 주님을 본받아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신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최현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작은 자로 귀한 섬김의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한경근

부족한 저에게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직분에 합당하게 충성하고 더 깊이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을 최우선에 두겠습니다. 그 뜻에 순종하며 허락하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협력하겠습니다.

다. 그리하여 주님이 명령하신 아름다운 공동체의 선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교회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삶의 감격이 있는 성도로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도록 애쓰겠습니다.



허영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119:105).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생활을 하고, 부족하지만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늘 섬기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명예권사〉



김연옥

임직식을 마친 후 곰곰이 생각해 본다. ‘명예’라는 이름이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다. 앞으로 더 낮은 자세로 주님의 소명을 감당하리라 다짐해 본다.



김정민

열린교회에 처음 온 때가 엇그제 같은데 10년이 넘는 긴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보다 임직을 앞두고 40일 특새 기간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마음과 영혼을 준비시켜주신 뜻깊은 시간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저에게 세상의 박사보다 귀한 명예권사 직분 주셔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과 같이 쓰임 받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김정숙

열린교회에 와서 목양을 잘 받고 은혜받아 고난과 시련의 때도 잘 견딜 수 있었습니다. 명예권사의 직분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사랑과 겸손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여종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백문옥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사32:8) 말씀처럼 주님이 주신 귀한 직분, 주님의 마

음을 헤아려 겸손하고 귀하게 섬기겠습니다.



변경숙

많이 부족한 저에게 명예권사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열린교회에서 권사직에 맞게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서경덕

부족한 저에게 주님의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세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충성된 직분자로 열린 교회를 섬기며 예배자로,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지순

모든 일의 주권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 드린다. 지금까지 해온 나의 삶의 일상이었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여정을 마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구주 되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예배와 기도로 본이 되는 명예권사가 되기를 소망한다. 찬송가로 나의 마음의 소원을 다짐해 본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유현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족함이 많았는데, 명예직인 명예권사 직분을 받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이광자

열린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말씀으로 나를 찾아와 주셨고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영생의 은혜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열린교회의 목양으로 믿음이 자라게 하셔서 명예권사 직분을 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남은 삶 동안 교회의 많은 사역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만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간구합니다.

교회 소식



중등부 여름수련회

주제 복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날짜 7월 21일(주일)~23일(화)
장소 여주중앙청소년수련원
강사 반승환 목사(소울브릿지교회 담임)

고등부 여름수련회

주제 그림자에서 그늘로
날짜 7월 25일(목)~27일(토)
장소 광림수도원(경기도 광주)
강사 손하람 목사

청년부 여름수련회

주제 아이덴티티: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다
날짜 7월28일(주일)~30일(화)
장소 광림수도원(경기도 광주)
강사 김성진 담임목사
특강강사 이정규 목사(시광교회 담임), 이상준 목사(1516교회 담임)
찬양콘서트 우미셀 목사(만나교회 청년부)

새가족 환영축제

일시 7월 7일(주일) 오후2시
장소 새가족실(별관2층)

해외아웃리치

31일(수)~8월6일(화) 태국 아웃리치
31일(수)~8월7일(수) 라오스 아웃리치

사랑부 여름캠프

믿음에 굳게 서요



날짜 7월 5일(금) ~ 7일(주일)
장소 베다니하우스(인천, 5~6일)/
교육실4(별관2층, 7일)

유아세례교육후기

오직 은혜! 선하신 하나님



권영미 장년6교구
eundam79@naver.com



기쁜 주일, 특별히 내일은 유아세례가 있어서 더 설
레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선
물, 유은이가 유아세례를 받기까지 어떤 섬세한 은혜로 함
께해 주셨는지 글로 적어보며 제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자 합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니 늘 하나님께서 평온하게 인도해 주
셨습니다. 열심히 소원하며 기도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주
시고, 또 기도하면 원하는 대로 인도해 주셨던 삶을 살아왔
습니다. 그런 저에게 아주 낯선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결
혼’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오래오래 기다려야
했습니다.

40살, 아주 늦은 나이에 결혼하였습니다. 제 나이는 고
려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을 했으니 금세
아기를 주실 것이라 믿으며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임신’
은 제게 결혼만큼이나 낯선 일이 되었습니다. 난임 휴직을
하며 시험관 시술을 시작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섬김기도에도 참여해 보고, 성경 통
독과 시편 암송도 하며... 세상에서 가장 가난해진 것만 같
았던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날엔 말씀으로, 어떤 날
엔 찬양 가사로, 어떤 날엔 자연 속에서 힘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채 2년의 난임 휴직을 다 사용
하고 복직해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
신 말씀이 있는데 왜 안 주셨을까 의아했습니다. 잘못 받
은 말씀인 걸까, 뭔가 아쉬운 마음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주셨으면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지금은
너무 슬프지만 조금 지나면 괜찮게 해주시겠지... 하는 마
음으로 복직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맡겨놓았다가 때가
되어 돌려받을 것이 있는 사람처럼 기도했던 모습을 회개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에 내게 좋지 않은 것을
주실 리가 없음을 기억하며, 매일 되새겼습니다. 하지만 저
에게 주신 말씀이 너무 선명했고, 마음으로 아직도 간절하
게 소망하고 있었기에 마지막이란 마음으로 시험관 시술
을 다시 했습니다.

10번째... 2년 동안 산을 오르고,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
들을 먹으며 준비할 땐 되지 않았는데 학교 급식을 먹고,
아이들과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분주하게 일하며 시도한
때에 임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말 조금도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그때가 가장 좋은 때였습니다. 바로 그

때였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었고, 약했던 몸이 시
험관을 준비하며 운동과 음식 등으로 인해 더 건강해졌으
며, 그리고 여렸던 마음이 제법 단단해진 것을 느낄 수 있
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시구나, 내 몸 상태와 상
황과 모든 것을 예비하신 후에 주시는구나. 내게 주신 말
씀 그대로 이루어주셨구나!’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결혼 후 5년, 저는 45살, 남편은 46살이 되는 해에 건강
한 아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
리 아기의 태명은 ‘오은’이었습니다. 오직 은혜, 오은! 정
말 오직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아기 이름은 오은이
라는 뜻을 살려 한자 오직 유(唯), 은혜 은(恩)으로 유은이
가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전도사님, 릴레이섬김기도, 구역
의 지체들, 남편이 섬기는 유년부의 선생님들, 친구들, 가
족들... 많은 분이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섬김기도의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9번이나 실패하
며 눈물 나고 가슴 아파서 기도조차 안 나오던 순간에 섬
김기도는 정말 다시 마음의 힘을 낼 수 있게 해 준 하나님
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세례교육을 받으며 남편과 자주 “우리가 유아세례를 받
다니, 정말 은혜다, 은혜! 유은아, 고마워”하며 이야기를 나
누었습니다. 정말 정성스런 마음으로 유은이의 세례를 준
비하기로 했습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도 꼼꼼하게 다시
외워보고, 십계명의 굵은 글씨 외의 것들도 외워보고, 문
답 내용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외워보자” 하며 열심히
기쁨으로 준비했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으로 늘 말씀 안에
있었는데 참 신기하게 세례교육을 받으며 말씀이 처음 보
는 말씀처럼 새롭고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유은이같이
아기가 된 것처럼 “어떻게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을까,
너무 신기하지 않아?” 하며 남편과 유은이와 이야기 나누
며 공부했습니다.

주일이 너무 기대됩니다. “사랑하는 유은아, 오늘 너의
맘속에 예수님이 은혜의 씨앗을 심어주셨어. 은혜가 풍성
한 나무로 잘 자라나, 감사하며 나누며 누리는 너의 삶이
길 순간마다 축복하며 기도해.” 세례받을 때 자녀에게 보
내는 축복 메시지를 고민하며 남편과 적어보았습니다. 유
은이뿐만 아니라 저와 남편도 은혜가 풍성한 나무로 계속
자라나,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기도해준 지체들처럼
기도와 마음을 나누며, 주신 것들을 기쁨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

곰곰이 생각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글·그림: 나동훈
gomgom2@designzip.co.kr

고슴도치가 ‘어린 고슴도치’를 사랑하는 이유는?
그놈이 ‘자기 새끼’이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내 새끼!
이빠! 너무 이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날 사랑한다고?
어디가 이빠지?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교회 빠지지 않는 자?
No!



착하게 살아온 자?
No!



신을 인정하는 자?
No!

자신이 별받을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옷을 입은 자’로 나타나는 길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한복음 1장 12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로마서 8장 17절 상)

포토에세이

사진: 김범무(장년6교구)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영아·유아부 여름성경학교 7월 6일(토) ~ 7일(주일) 영아부 영아부실(별관1층) 유아부 4세-유아부실(세빛빌딩2층) 5세-유치부실(세빛빌딩3층)	유치·유년부 여름성경학교 7월 13일(토) ~ 14일(주일) 유치부 7월 13일(토) ~ 14일(주일) 유치부실(세빛빌딩3층) 유년부 7월 12일(금) ~ 14일(주일) 유년부실(열린빌딩2층)	초등·소년부 여름성경학교 7월 19일(금) ~ 21일(주일) 초등부 고등부실(세빛빌딩4층) 소년부 예배실(본관1층)
--	--	---



나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

이은경 장년5교구
sk9531@hanmail.net



내가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된 것은 기억에 없다. 대어섯 살 쯤 여름성경학교에 동네 아이들과 눈알사탕을 받아먹는 재미로 따라갔었다는 것을 어머니께 전해 들은 것이 전부이다. 그 후 집안 사정으로 야반도주하듯이, 살고있던 부산을 떠나 충청도 산골 외할머니 댁으로 이사한 후, 친구 손에 이끌려 교회 문턱에 들어서면서 나의 신앙생활은 시작되었다. 나는 교회가 너무 좋았다. 말투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을 때도, 어머니께 꾸지람을 듣고 서러워 엉엉 울 때도 예배당 한 모퉁이에 앉아서 하나님께 일러바쳤다. 그렇게 나는 외로움을 달랠 수 있었다.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이셨다.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 침묵하시기에, 왜 나에게만 이러시냐고 따지듯이 묻기 시작했다. 지독한 가난과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꼬리표는 나의 유년 시절과 청소년기에 반항심만 가득 심어주었다. 우여곡절을 겪고 억지로 가게 된 전문대학은 성에 차지 않았다. 나는 뽀대(?)나는 과 대표와 대외활동으로 허전함을 채웠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아이가 되어갔다.

1987년 여름, C.C.C 수련회에서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다. 그것이 나에게서는 큰 기쁨이기도 했지만, 나의 모난 성품이 다듬어지는 과정이 될 줄 몰랐다.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했던 나는 불의와 현실에 타협하는 주변인들을 정죄하기 시작했다. 내가 맞고 그들이 틀리다고 생각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나는 웃음을 잃어갔다. 게다가 이유 없는 두통이 하루 종일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설상가상으로 내가 다니고 있던 교회에서 전하는 말씀이 이상했다.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재림이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게 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 교회 목사님은 시한부 종말론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이번엔 침묵하시는 하나님보다 말 많은 인간들이 더 무서웠다.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교회를 말없이 나와 버렸다.

그리고 다다른 곳이 천주교 성당이였다. 구원의 확신은 있었기에 참다운 진리가 있는 곳에 나를 세워 달라는 기도만으로 약 2년 동안 그곳에 있었다. 늘 침묵으로 일관하시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나에게 다시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그 곳은 온전한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였고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했던 어리석은 모습을 깨닫게 하셨다. 알고 보니 그 때 나를 위해 끝까지 기도하던 친구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홀로 두지 않으셨던 것이다. 그 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결혼을 하게 되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보상이자 선물이 라고 여겨졌다. 그리고 어릴 적 누리지 못했던 결핍에 대한 보상이 갑자기 나에게 주어진 것 같았다. 친정어머니가 운영하시던 식당이 대박을 침과 동시에 가족을 떠났던 아버지가 돌아오셨다.

2006년 가을이 시작될 무렵 갑자기 부산 본사에서 남편에게 연고도 없는 서울로 발령을 내렸다. 두려운 마음으로 도시 생활을 시작하였고, <게으름> 책을 통하여 열린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다. 은혜의 말씀이 매주 나에게 쏟아졌다. 그럼에도 불쑥불쑥 밀바닥에 깔려있던 옛 자아가 나를 요동케 하였다. 여전히 믿지 않는 어머니와의 갈등, 우리에게 가혹할 만큼 아픔을 주셨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가시지 않았다. 그런데 주님은 계속 말씀을 통해 부모님을 용서라고 하셨다. 나는 울 수밖에 없었다. 순종하고 싶지 않은 정말 힘든 순간이었다.

코로나 19의 거센 바람이 시작된 2020년 6월, 오랫동안 병마와 싸우시던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다. 감사한 것은 돌아가시기 2년 전 쯤 신앙을 갖게 되었고, 편안한 모습으로 우리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것이다. 아버지와 끝내 화해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게 아쉽기는 하지만, 나는 어머니의 진심을 알고 있었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 유언처럼 나에게 말씀하셨다.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받아 들이렴...” 갑작스런 친정어머니의 부재와 함께, 몇 개월도 안 돼서 또 다른 불행이 나에게 다가왔다. 결핍을 채우기 위해 시작했던 대학원 공부 결과로 얻었던 직장이 코로나 19로 문을 닫은 것이다. 내가 돌보아야 할 엄마와 소속감이 갑자기 사라지니 그 상실감은 무척 컸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을 보냈다. 이번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들이 궁금해졌다. 현실을 직시한다는 것이 무섭고 힘들기는 했지만 피할 수만은 없기에 용기를 내기로 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

그 후 나의 삶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늘 조급함과 성급함으로 하나님께 떼쓰듯 기도하던 모습에서 진정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먼저 물어보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변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그리고 완전히 용서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연로하신 아버지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권사라는 섬김의 자리뿐만 아니라 40일 특별새벽기도를 통해 우리 부부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 갑작스런 남편의 원하지 않는 이직이 눈앞을 캄캄하게 했음에도 감사할 줄 아는 성도, 내 뜻과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확신이 들 경우에는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몸소 체험하게 하셨다. 그 열매가 바로 수요일예배의 회복과 찬양과 기도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금요일기도회의 회복이다. 그리고 저녁마다 남편과 함께 교회 모퉁이에 앉아 예전처럼 기도를 하게 되었다.

이 행복한 시간들을 잊거나 소홀히 하고 싶지 않다. 오랫동안 기다려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이다. 또다시 미련한자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 세 아이의 기도하는 부지런한 엄마와 아내, 하나님께 내일을 맡기는 주일학교 교사, 그리고 지체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권사,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좋은 공부방 선생님으로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참다운 성도가 되길 소망한다. ☆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김성진
시무장로	김기현 박정갑 금성철 황철호 김대영 박기준 김용연 성경열 김춘경 이영춘 구용회 이동훈 박희준
휴직장로	김남근
은퇴장로	임두순 이대환 김희철 박찬동 김원효
부목사	박재현 김동기 박철웅 이성도 최성기 류요한 권경철 명성인 김태영 손하람
협동목사	정창욱
강도사	김진산 최영광
전도사	곽혜정 조희숙 정경아 최선미 김현희 김미영 박숙현 양승희 이지연 이월순 김민성 김진하 이두호 조일권 김다영
교육전도사	이해선 김태훈 권세원

파송선교사

A국: 2 units / B국: 1 unit / C국: 1 unit

말레이시아: 양선우 & 전해림

에스와티니: 황아론 & 양진영 / 박현철 & 박상유

인도네시아: 신동진 & 정지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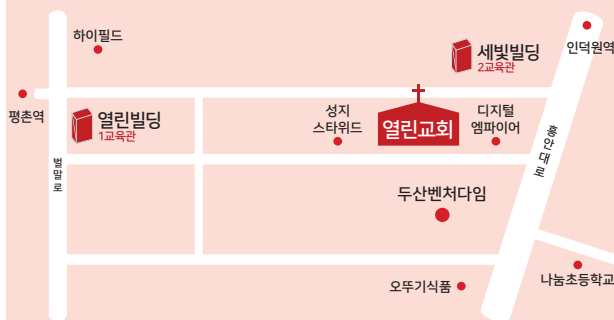
태국: 김요한 & 이진

국내 디아스포라: 정진학 & 손원항

예배시간 안내

	구분	시간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본관 3층 예배실)
	2부	오전 10시 (본관 3층 예배실)
	3부	오후 12시 (본관 3층 예배실)
	4부	오후 2시 (본관 3층 예배실)
교회학교	영아부	오전 10시 / 12시 (별관 1층 교육실2)
	유아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2층 교육실1)
	유치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3층 교육실2)
	유년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2층 교육실3)
	초등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2층 교육실4)
	소년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1층 교육실2)
	중등부	오전 10시 / 12시 (열린빌딩 1층 교육실1)
	고등부	오전 10시 / 12시 (세빛빌딩 4층 교육실3)
사랑부	오전 10시 (별관 1층 교육실1)	
중국인예배 中国人礼拜	오전 11시 30분 (세빛빌딩 5층 중국실) 上午 11时 30分 (世光大厦 5层 中文室)	
새벽기도	오전 5시 30분 (본관 3층 예배실)	
수요일예배	오후 7시 30분 (본관 3층 예배실)	
시편기도회	금요일 오후 8시 (본관 3층 예배실)	
수요성경기도	오전 10시 30분 (본관 1층 예배실)	
백향목공동체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본관 1층 예배실)	
화요전도기도회	오전 10시 (본관 1층 예배실)	

찾아오시는 길



※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4번출구)에서 버스 환승하거나
평촌역(3번출구)에서 20분 정도 걸어오시면 됩니다



공중 나는 새와 들에 핀 꽃 한송이도 먹이고 입히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을 돌보고 계십니다

열린교회